

7/13/25

설교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는 유다 땅에 남은 자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예레미야 43 장 1- 13 절

(렘 43: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렘 43:2)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렘 43: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렘 43:4)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렘 43: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렘 43:6)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렘 43:7)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렘 43:8)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렘 43:9)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렘 43:10)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렘 43:11)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렘 43:12)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렘 43:13)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으면서도 마음을 속이고 예레미야를 찾아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에 대해 여쭙어봐 달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이 생각과 다르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며,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남아 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함께 당신 백성의 남은 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애굽행을 강행합니다.

이들은 애굽행을 강행하며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뉘어 씩읍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얼버무리려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립니다.

바룩이 자신들을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거나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려고 예레미야를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렘 43: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렘 43:2)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렘 43: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그들이 애초 생각대로 애굽행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렘 43:4)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렘 43: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렘 43:6)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렘 43:7)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없이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일행을 대표하는 요하난의 행동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행동과 대비됩니다.

이방인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군 지휘관 대표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포로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예루살렘 멸망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말하며 그를 풀어주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반면, 요하난은 예레미야가 전한 신탁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그를 강제하여 자신들과 함께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유다 백성 모두가 다 애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유다 땅에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가는 중,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와서 애굽을 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임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지시하십니다.

(렘 43:8)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렘 43:9)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렘 43:10)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 대문의 축대에 묻어두라고 하십니다.

큰 돌이 놓인 곳에 느부갓네살 왕의 군막이 설치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큰 돌은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했다는 증표로 세우게 될 그의 보좌의 주춧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에 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대로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사로 잡히고 어떤 자는 칼에 맞을 것입니다.

애굽 신당과 신상도 불살라지고 깨뜨려질 것입니다.

(렘 43:11)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렘 43:12)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렘 43:13)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전리품을 챙겨 안전하게 애굽을 떠날 것입니다.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자기 몸에 두르고’는 철저한 약탈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애굽은 사방이 요새화되어 있었고 나일강과 홍해 및 호수들로 둘러싸여 천혜의 방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는 그러한 방벽들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려는 유다 땅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 내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안전과 평안을 찾아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은 결국 심판의 자리가 되었고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길을 택한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심판이 가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우고, 복을 내리며,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여러분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애굽으로 가서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